

광주시의회 민주·국민 막판 줄다리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 인원을 놓고 교섭단체 간 첨예한 갈등으로 여러날 파행을 이어온 광주시의회가 예결특위 개의(開議)를 앞두고 막판 타결을 이뤄 낼 지, 아니면 장기 파행으로 치달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일 오전 제 260회 임시회 예결특위 1차 회의를 열고 4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마친 제회 추경안에 대한 특위 심의를 발의 예정이다.

그러나 특위 구성비율을 놓고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대립으로 예결위원수와 당별 구성 인원 등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 개시 여부는 안갯 속이다.

이에 양당은 개의를 앞서 5대 5 동수로 하며,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

예결특위 구성인원 놓고 민주·국민 '5대 5 동수' 협의 상임위 심의 우여곡절 끝 마무리...개의회 타결될 수도

주당이 맡는다는 최종안을 놓고 양당 의원 총회와 교섭대표단 협의를 거쳐 위원수와 위원장을 결정, 특위를 정상화시킨 뒤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구성인원을 놓고 양당은 기본조례와 대표자 간 합의문, '원내 1당론 대 다수당 견제론'이 맞서면서 거친 표현을 동원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이 과정에서 ▲4대 4 동수+의장 추천 1인 ▲위원장 11명으로 확대 ▲17명으로 대폭 증원 등의 카드가 제시됐으나, '주도권 다분, '밖그릇 싸움'이라는 양비론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공전했다.

특히 17명 특위 구성론은 재적의원 22명의 77.2%에 이르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데다 4개 상임위 소속 위원 대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어서 자연스레 '상임위 무용론', '과잉 심의', '집행부 파김치 논란'이 제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결국 시의회는 본회의 제안 설명을 듣는 조건으로 예결위 구성없이 우선 상임위 정상화에 나서 '반쪽심' 등의 진통 끝에 지난 7일 상임위별 소관부서 심의를 모두 마쳤다. 최종안은 상임위 집행 과정에서 도출됐고 현재 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 민중연합당 1명 등 9명으로

짜여진 특위를 10명으로 1명 늘려 양당에서 5명씩 참여하고,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는 방식이다.

최종안은 국민의당에 제시한 카드로서 민주당이 받아들여느냐가 남은 관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몇몇 의원들이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안들에 비해서는 진전된 내용"이라며 "최종 결론은 의원 총회 등을 거쳐서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모두가 패자일 수밖에 없고 지역 여론도 좋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막판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회는 22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이 12명, 국민의당이 9명, 민중연합당은 1명이다.

신봉우 기자

동구, 학동3구역 저소음 포장공사 최종 합의

광주 동구는 지난달 27일 학동 3구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정산인 조종진)이 저소음 포장공사 시행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동 3구역은 준공 전 실시한 소음측정결과 주택법 소음기준에 적당하게 측정됐지만 남광주교도로의 소음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구는 조합과 시공사가 도로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저소음 포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내용은 남광주교도로 458m구간을 저소음포장공법(RSBS 복층 공법)으로 포장하고 약 9억5천만 원의 사업비는 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시공이 완료되면 광주광역시 도로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예정이다.

서구, 으뜸서구 생각토론 한마당 아이디어 모집

광주 서구는 "2017년 으뜸서구 생각토론 한마당" 개최를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으뜸서구 생각토론 한마당은 주민들의 특색 있는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민만족도, 행정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내용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이디어 접수가 끝나면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심사위원회(1차), 제안심사위원회(2차) 심사를 통해 최종 본선 진출 10건과 참여보상 10건을 선발한다.

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꼭 납부"

광주 남구는 7일 "재산세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와 공평 과세 및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상가과 공상 등 주택의 건축물과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부속토지 포함)이다.

이중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북구, 행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광주 북구가 마을활동가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마을공동체간 활동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을활동가 및 마을공동체 사업단체를 대상으로 마을활동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마을활동 네트워크는 마을공동체간 인적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마을의 고인거리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 마을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고자 마련됐다.

올해 북구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해 ▲이름다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원 ▲새내기 마을모임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 모두 88개 사업을 선정, 총 6억여원을 지원한다.

광산구,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개최

광주 광산구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7일 오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열었다.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광산구'를 주제로 개최한 기념식에서 구는 성평등 구현에 공이 큰 주민 10명에게 광산여성상을 수여했다.

주민, 공직자 등 300여명이 함께 한 기념식에서 광산구는 '여성과 인권' 특강, 가정폭력 및 이혼후에 예방 홍보, 여성일자리 상담 창구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운영했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새마을회, 훈훈한 지역만들기

시·군회장단과 직원 등 200여명 참여 한마음 워크숍 개최

전남도새마을회(회장 황규영)는 '훈훈한 지역만들기를 위한 친절·질서·정결운동 시군회장단·사무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금호화순디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충근 화순군수와 황규영 전라남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시군회장단과 사무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강을 통한 공동체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별 그룹토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전라남도새마을회연합회의 후원으로 가가호호 아이돌꽃! 희망전남을 위한 우리아이 행복상자 22개를 각 시군에 전달도 했다.



우리아이 행복상자는 입산후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중 불우한

세대를 선발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농어촌공,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 추진



나주 대도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충남 당진 석문호(100MW)와 대호호(100MW), 전남 고흥호(80MW) 등 담수호 3곳에 총 280MW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단일규모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중국 화이난시에 설치된 40MW급이 유일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석문호 등 담수호 3곳에 80~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유하게 된다.

수상태양광 발전은 육상태양광 발전보다 10% 이상 발전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일 계획이어서 좁은 국토 면적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발전은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은우 기자

공사는 오는 10월1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홍보·관광 사업 모델을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6만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나무 약 118만 그루를 심었을 때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기후 변화시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며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시급 2.45%↑ 타결

올해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시급 2.45% 인상을 주 내용으로 타결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8일 호봉별 시급 대비 2.45% 인상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시급 2.45% 인상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준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담양군 공고제2017-606호

2021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공람공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을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담양군

1. 2021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가) 관리계획기간: 2017년 ~ 2021년(5년간) 나) 관리계획(안) 주요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⑧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
②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⑨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
③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⑩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에 관한 계획
④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⑪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에 관한 사항
⑤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광주모두주변 호수생태원 확장")	⑫ 구역관리의 진화에 관한 사항
⑥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⑬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⑦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⑭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다) 입지대상시설사업계획내용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m ²) 정밀변경	건축면적	비고
화순군 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	화순군수	화순군 화순읍 고리 268-13번지 일원	29,633	180	

2. 공람기간: 2017. 7. 10. ~ 7. 25. 04일(이상)
3. 관계서류: 계획서(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담양군 도시디자인과(☎061-380-3093)